

# ROLLS-ROYCE | MEDIA INFORMATION

# 롤스로이스모터카, 굿우드 홈 오브 롤스로이스 설립 20주년 기념 20년을 빛낸 20대의 롤스로이스 공개

2023년 1월 30일(굿우드) - 롤스로이스모터카가 영국 굿우드 '홈 오브 롤스로이스' 설립 및 생산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을 빛낸 20대의 롤스로이스를 공개했다.

롤스로이스모터카는 지난 2003년 영국 굿우드(Goodwood)에 롤스로이스 본사 및 제조 공장을 출범한 후 현재까지 20년간 차량을 생산해왔다. 굿우드 홈 오브 롤스로이스는 전 세계에서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설계되고 수제작되는 유일한 장소이며,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롤스로이스의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이기도 하다.

2003년 당시 롤스로이스는 7세대 팬텀(Phantom) 단일 모델만을 생산했다. 이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와 취향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20종의 모델 및 파생 모델이 탄생했다. 현재 롤스로이스 라인업에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디자인, 기술, 소재, 공법에서의 진화와 혁신이 녹아 있다.

롤스로이스는 2007년 팬텀 드롭헤드 쿠페와 2008년 팬텀 쿠페를 연이어 출시하며 팬텀 패밀리를 완성했다. 2010년에는 롤스로이스의 르네상스를 이끈 고스트(Ghost)를 출시했다. 고객이 직접 운전하는 '오너드리븐'과 운전 기사를 따로 두고 운행하는 '쇼퍼드리븐' 두 가지 특성이 공존하는 고스트는 1904년 롤스로이스 창립 이래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링 모델로 등극했다.

제품군은 이후 더욱 확장되어 2013년에는 가장 강력한 모델 레이스(Wraith)가 출시됐으며, 2016년에는 감각적인 드롭헤드 모델인 던(Dawn)이 출시됐다. 2018년에는 'SUV계의 롤스로이스' 컬리넌(Cullinan)을 선보였다. 컬리넌은 현재 롤스로이스의 라인업 가운데 가장 수요가 높은 모델이다.

젊은 고객층의 구매 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롤스로이스는 보다 전복적이고 반항적인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기존 모델에 훨씬 대담한 표현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입힌 블랙 배지(Black Badge)를 탄생시켰다. 현재 팬텀을 제외한 전 라인업이 블랙 배지 버전으로도 제공되고 있으며, 브랜드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20대의 차량에는 롤스로이스의 혁신적인 실험용 차량인 'EX' 모델들도 포함됐다. 홈 오브 롤스로이스의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부서는 굿우드 시대가 시작된 2003년부터 다양한 실험용 차량을





제작해왔다. 해당 모델에는 롤스로이스 전통에 따라 1950년대까지 개발 중인 모델의 비밀유지를 위해 붙였던 'EX'라는 명칭과 독특한 빨간색 'RR' 배지가 붙었다. EX 모델들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기술집약적 모델을 위한 훌륭한 바탕이 됐다.

또한, 궁극의 비스포크 역량을 자랑하는 두 대의 코치빌드(Coachbuild) 걸작도 포함됐다. 롤스로이스는 비스포크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보다 희소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 비스포크 최상위 제작 방식인 코치빌드 독립 부서를 출범했으며, 지난 2021년 5월 코치빌드의 첫 번째 모델 보트 테일(Boat Tail)을 공개한 바 있다. 개별 주문을 통해 오직 수제작으로만 만들어지는 이 모델들은 브랜드 초창기의 코치빌딩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최신 디자인 감각과 엔지니어링 및 제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거듭났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Torsten Müller-Ötvös) 롤스로이스모터카 CEO는 "롤스로이스는 언제나 혁신과 진보를 대변했으며, 기술과 창조의 한계에 도전했다. 홈 오브 롤스로이스의 첫 20년간 제작된 20대의 모델을 이러한 헌신과 모험정신의 결과"라며, "이 차량들은 롤스로이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와 취향을 이해하고 그에 부응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롤스로이스는 지난 10월 브랜드 사상 최초의 순수전기 모델 스펙터(Spectre)를 공개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스펙터는 롤스로이스가 제시하는 대담한 혁신 정신의 상징이자, 미래에 출시될모델에 탑재될 기술 및 철학적 지향점의 기반이 될 것이다. 롤스로이스는 2030년부터 모든 신규 모델을 오직 순수전기차로만 출시할 예정이다.

# 20년, 20대의 롤스로이스

## 1. **팬텀**(Phantom), 2003

굿우드 시대 최초의 팬텀은 7세대 모델로, 자동차 산업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이름을 물려받았다. 기술, 승차감, 성능, 그리고 특유의 '매직 카펫 라이드'를 결합시킨 7세대 팬텀은 이후 출시된 모든 모델이 따르게 될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 2.100EX, 2004

롤스로이스의 창립자인 찰스 롤스와 헨리 로이스의 첫 만남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100EX는 롤스로이스모터카가 BMW 그룹에 인수된 후 처음으로 제작한 실험용 자동차였다. 강력한 9L V16 엔진이 탑재된 100EX는 훗날 팬텀 드롭헤드 쿠페의 시초가 된 모델이다.

## 3. 팬텀 익스텐디드(Phantom Extended), 2005





2005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팬텀 익스텐디드는 일반 팬텀보다 전장이 250mm 더 길었다. 더 넓고 여유로워진 뒷좌석 레그룸 덕분에 쇼퍼드리븐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었다.

## 4. 101EX, 2006

IOOEX와 마찬가지로, 이 실험용 프로토타입 자동차 또한 팬텀과 같은 가벼운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바디 패널에는 탄소섬유 복합재가 사용됐다. 이 모델은 이후 정식 생산에 들어가세계적 명성을 얻은 6.75L V12 엔진 모델 팬텀 쿠페의 기반이 됐다.

# 5. 팬텀 드롭헤드 쿠페(Phantom Drophead Coupé), 2007

굿우드 생산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했던 모델 중 하나인 팬텀 드롭헤드 쿠페는 공개되자마자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팬텀 드롭헤드 쿠페는 100EX를 기반으로 한 개성 넘치는 스타일은 물론, 레이싱요트 갑판에서 영감을 얻은 데크와 차량 내부를 우드 비니어로 장식해 압도적이면서도 우아한 외관을 완성했다.

## 6. **팬텀 쿠페**(Phantom Coupé), 2008

팬텀 쿠페는 필러 없는 구조로 된 진정한 하드 톱 2도어 쿠페다. 롤스로이스는 20여년만에 이러한 유형의 자동차를 만들었다. 드롭헤드 쿠페와 마찬가지로, 팬텀 쿠페 역시 실험용 모델 101EX를 통해 개발한 디자인 요소와 설계 기술을 도입했다.

# 7. 200EX, 2009

2009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200EX는 보다 접근성 높고, 운전자 중심의 롤스로이스를 원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실험용 자동차다.

# 8. **고스트**(Ghost), 2010

새로운 세대의 롤스로이스 고객을 위해 설계된 고스트는 간결하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수월하고 역동적인 성능으로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 고스트는 지금까지도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모델이다.

# 9.102EX, 2011

롤스로이스는 단일 프로토타입 전기 팬텀 102EX를 통해 미래 모델의 동력으로 적합한 기술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의 슈퍼 럭셔리 전기차인 102EX는 전 세계 투어를 돌며 고객, 애호가, 미디어, 대중으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 10. 고스트 익스텐디드(Ghost Extended), 2011





롤스로이스는 쇼퍼드리븐을 원하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고스트의 익스텐디드 버전을 제작했다. 차량은 뒷좌석 승객에게 더 넓은 공간과 안락함을 제공하면서도 자동차의 운전자 중심 성향을 그대로 유지했다.

# 11. 레이스(Wraith), 2013

페스트백 레이스는 궁극의 그란 투리스모를 지향했다. 이 차량에는 롤스로이스 공동 창립자 찰스 스튜어트 롤스에게 영감을 준 대담한 개척자 정신, 모험심, 속도에 대한 사랑이 녹아 들어 있다.

# 12. **던**(Dawn), 2016

수퍼 럭셔리 4인승 컨버터블의 결정체인 던은 완벽한 승차감으로 네 사람의 즐거운 여행을 보장한다. 차량 루프는 완벽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보여준다. '침묵의 발레'라고 명명된 이 메커니즘을 통해 던의 루프는 시속 50km의 속도 내에서 22초만에 어떠한 소음도 없이 열리고 닫히며, 루프가 닫힌 실내는 롤스로이스 레이스만큼 조용하다.

# 13. 블랙 배지 레이스 및 블랙 배지 고스트(Black Badge Wraith, Black Badge Ghost), 2016

블랙 배지 라인업은 '롤스로이스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엎은 혁신적인 모델이다. 블랙 배지는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훨씬 즉각적이고 강렬한 운전 경험을 위해 특별 조정을 거쳤다. 이와 동시에 무한에 가까운 비스포크 맞춤 제작 옵션을 함께 제공한다. 레이스와 고스트의 블랙 배지 버전 모두 토크가 늘어났으며, 특별 에어 서스펜션 세팅과 드리이브 샤프트가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스로틀 반응과 보다 빠르고 정밀한 8단 자동변속기도 장착됐다. 덕분에 롤스로이스 특유의 '매직 카펫 라이드'라는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층 날렵하고 몰입감 넘치는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 14. 103EX, 2016

아마도 굿우드에서 만들어진 가장 급진적인 실험용 자동차일 롤스로이스 비전 넥스트 100, 코드명 103EX는 미래 럭셔리 모빌리티에 대한 롤스로이스만의 타협 없는 관점을 보여준다. 순수전기차이자 완전 자율주행 및 첨단 인공지능을 갖춘 103EX는 전동화와 고도로 개인화된 여행을 지향하는 롤스로이스의 미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15. **스웹테일(Sweptail)**, 2017

롤스로이스는 스웹테일을 통해 코치빌딩의 미학을 되살려냈다. 당시 이 모델은 '오뜨꾸뛰르(Haute Couture) 자동차'로 설명됐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코치빌드 롤스로이스와 레이싱 요트에서 영감을 얻은 세계 유일의 2인승 쿠페 스웹테일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장착되었으며, 코치 도어 뒤편에 두개의 수제 비스포크 서류 가방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 16. **팬텀** 8(Phantom 8), 2017

위대한 자동차와 럭셔리 제품의 전당에서 팬텀만큼 높은 자리에 오른 이름은 없다. 롤스로이스는 팬텀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모델로 재창조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팬텀은 변화하는 새로운 세대의 감각을 충족시키면서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는 위상에 부합하는 당당한 존재감을 유지했다.

## 17. **컬리넌(Cullinan)**, 2018

컬리넌은 'SUV계 롤스로이스'라는 표현이 부끄럽지 않은 자동차다. '언제 어디에서든 즐길 수 있는' 성능, 무한한 비스포크 옵션과 레크리에이션 모듈 등 특별한 라이프스타일 기능을 갖춘 컬리넌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원하는 럭셔리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 18. 블랙 배지 컬리넌(Black Badge Cullinan), 2019

컬리넌 역시 새롭고 어두운 페르소나를 입었다. 더 강력한 6.7L VI2 엔진, 블랙으로 덮인 22인치 단조 휠과 판테온 그릴 및 환희의 여신상이 블랙 배지 컬리넌을 장식하며, 롤스로이스 최초로 컬러 도색된 브레이크 캘리퍼 옵션도 적용됐다.

## 19. 뉴 고스트(New Ghost), 2020

롤스로이스는 새로운 세대의 고객들이 자동차에 요구하는 바를 반영해 뉴 고스트를 만들었다. 뉴고스트에는 신개념 럭셔리 코드,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소재의 본질을 중점에 둔 미학이 완벽하게 반영됐다. 또한 뒷좌석의 고요함과 안락함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경험하도록 하는 엔지니어링 설계가 적용했다.

## 20. 보트 테일(Boat Tail), 2021

보트 테일은 롤스로이스 코치빌드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합성과 대담함을 안겨주었다. 도전적인 기술 프로젝트였던 보트 테일을 완성하는 데는 거의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오로지 수제작으로만 만들어진 진정한 예술 작품인 보트 테일은 코치빌딩을 브랜드의 방향성 및 미래 전략의 핵심 영역으로 삼고자 하는 롤스로이스의 노력을 보여준다.

###

## [참고자료]

2003 - 2023: 굿우드 홈 오브 롤스로이스 설립 20주년





1997 년, BMW 그룹이 롤스로이스모터카를 인수했다. 19○4 년 창립된 롤스로이스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자동차 브랜드이자 탁월함의 대명사였다. 모든 업계의 브랜드와 제품이 '○○ 계의 롤스로이스'로 불리길 바랄 정도였다. BMW 그룹은 롤스로이스의 새로운 주인이 되자마자 엄청난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 롤스로이스의 이러한 브랜드 위상과 유산에 걸맞은 새로운 '집'을 찾아야했기 때문이다.

#### 적합한 집

롤스로이스는 영국 웨스트 서섹스의 치체스터 및 인근 지역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롤스로이스의 공동 창립자 헨리 로이스 경은 생애의 마지막 16 년을 치체스터에 위치한 웨스트 위터링 엘름스테드(Elmstead, in West Wittering)에서 보냈다. 그는 이곳에서 역사에 남을 몇몇 작품을 만들어 냈다. 전설적인 전투기 모델인 '스핏파이어'에 장착된 멀린 항공기 엔진의 기초 디자인 스케치도 웨스트 위터링소재 해변에서 탄생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연결점에 주목한 결과, 이곳으로부터 8 마일 떨어져 있는 굿우드가 시야에 들어왔다. 굿우드는 '굿우드 모터 서킷(Goodwood Motor Circuit)'과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Festival of Speed)'가 열리는 곳으로서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였고 롤스로이스 고객에게는 세계적인 상류 사회의 중심지로 익숙한 곳이었다. 롤스로이스를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었다.

롤스로이스는 '홈 오브 롤스로이스'의 설계를 니콜라스 그림쇼 & 파트너스 사에 의뢰했다. 수많은 상을 수상한 그의 대표작으로는 런던의 워털루역과 콘월의 에덴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들이 설계한 건물은 멋지고 현대적이면서도 고도로 지속가능했으며, 주변 환경에 부드럽게 녹아 들었다. 홈 오브 롤스로이스는 건물 그 자체에 혁신과 진보된 기술, 장인정신 등 롤스로이스 차량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

햇수로 20 년이 지난 지금도 굿우드의 홈 오브 롤스로이스는 전 세계에서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설계되고 수제작되는 유일한 장소다. 또한 홈 오브 롤스로이스는 전 세계 50 여개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롤스로이스의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이기도 하다. 2016 년 회사는 제조 공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그너 레지스(Bognor Regis)에 기술물류센터(Technology and Logistics Centre)를 열었다.

#### 새로운 시대의 시작

롤스로이스는 새로운 집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동차'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해줄 새로운 플래그십모델도 필요했다. 그 결과 팬텀(Phantom)이 탄생했다. 2003 년 1월 1일 12 시 1분, 롤스로이스는 굿우드시대 첫 팬텀을 고객에게 출고했다. 고객은 지금도 1호 팬텀을 소유하고 있다. 2007년 회사는 팬텀드롭헤드 쿠페를 출시했으며, 이듬해 팬텀 쿠페를 내놓았다. 팬텀 쿠페는 고객과 미디어로부터 열렬한사랑을 받았으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롤스로이스 디자인 철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롤스로이스는 자수성가한 젊은 세대 고객들에게 점점 더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들은 롤스로이스에게 기존과는 다른 것을 희망하고 기대했다. 2010 년, 롤스로이스는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 고스트(Ghost)로 응답했다.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모델이자 운전자 중심의 모델인 고스트는 출시하자마자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롤스로이스로 자리 잡았다.

2013 년에는 강력한 모델 레이스(Wraith)가 등장했고, 그로부터 3 년 뒤에는 던 드롭헤드(Dawn)가 출시되었다. 2018 년에 출시된 컬리넌(Cullinan)은 고객이 비포장도로에서도 롤스로이스 특유의 '매직 카펫라이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컬리넌은 현재 회사의 라인업 가운데 가장 수요가 높은 모델이며, 팬텀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원하는 럭셔리 제품이다.

또한 몇몇 고객들은 더욱 전복적이고 반항적인 모델을 원했다. 이들을 위해 롤스로이스는 고스트, 레이스, 던, 컬리넌 등 기존 모델에 훨씬 대담한 표현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입힌 블랙 배지를 만들었다. 블랙 배지의 판매량은 현재 굿우드에서 제조되는 자동차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 선도적인 럭셔리 하우스

롤스로이스의 지난 20 년은 자동차 회사로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하우스로서 르네상스를 이룩한 시기였다. 롤스로이스는 업계를 이끄는 리더, 취향을 선도하는 차세대 문화 아이콘과 아티스트, 테크놀로지스트들이 선택하는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

지난 20 년간 롤스로이스는 지속적으로 비스포크 역량을 개발했으며 고객들을 위한 자동차 맞춤 제작의 범위를 거의 무한에 가깝게 확장시켰다.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치빌드다. 비스포크의 궁극으로서, 오직 극소수의 고객만이 코치빌드를 주문할 수 있다. 단지 색상이나 내부 사양뿐만 아니라 차량의 형태까지 맞춤 제작 가능하다.

BMW 그룹이 롤스로이스를 인수하고 홈 오브 롤스로이스를 설립했을 당시, 이들의 행보는 "자동차 제조의 마지막 대모험"이라 묘사되곤 했다. 2022 년 10 월, 롤스로이스는 다시 한번 대모험을 떠났다. 브랜드 역사상 최초의 순수전기 모델 스펙터(Spectre)를 발표한 것이다. 롤스로이스는 2030 년까지 모든 신규모델을 순수전기차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오늘날 롤스로이스는 전 세계에 럭셔리 제조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완벽함은 결코 유한하거나 고정된 가치가 아니다. 개선하고, 다듬고 재창조할 부분이 존재하는 한 완벽에 도달할 수 없다. '현존하는





최고의 것을 취해서 더 좋게 만들라'는 헨리 로이스 경의 격언을 따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굿우드 홈 오브 롤스로이스가 독창적이고, 마음을 사로잡으며, 영감을 불어넣는 장소인 이유다.

"굿우드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롤스로이스의 집이다. 이 곳은 롤스로이스가 독창적인 럭셔리 제품을 제작해내는 전 세계 유일의 장소다. 홈 오브 롤스로이스에는 디자인과 설계의 정밀함, 디테일에 대한 관심, 브랜드를 대하는 자부심 등 롤스로이스가 지향하는 모든 핵심 가치가 담겨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면서도 전 세계와 연결된 장소. 롤스로이스의 가족들은 이 곳을 자랑스러운 '집'이라 부른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Torsten Müller-Ötvös), **롤스로이스모터카** CEO

## 롤스로이스의 가족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굿우드가 롤스로이스 임직원에게 있어서도 집과 같은 곳이라는 점이다. 2003 년 350 명이었던 임직원은 현재 전 세계 50 개국 출신 2,500 명으로 늘어났다. 2022 년에만 150 명의 직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디자이너, 엔지니어, 장인, 조립 팀, 판매, 마케팅, 재무, IT, 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롤스로이스의 가족이다. 2022 년, 롤스로이스는 회사와 20 년을 함께한 직원들에게 장기 근속 포상을 제공했다.

롤스로이스는 2006 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을 통해 거의 200 명에 달하는 젊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롤스로이스에 정규직으로 취직해 감독 및 관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롤스로이스에서의 현장 실습을 통해 귀중한 경험을 얻고 롤스로이스와 BMW 그룹 등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 나갔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대학원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

# 보도자료 문의처

(Asia Pacific – South) Hal Serudin +65 8161 2843

(KOREA) Wellcom Associates, 문지희 차장 010-5376-4886 이주원 매니저 010-5054-3462 김우정 매니저 010-7130-5197

